‘블루베리 공동출하시스템’ 구축 협의회

곡성군, 난방기 · 다겹보온 커튼 등 지원

예산 5천만원…총 6개 세부사업 진행해

곡성군이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농업인 단체 임원 및 곡성농협 APC 담당자들과 2021년 블루베리 공동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곡성군은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베리 조기재배 확대를 위해 난방기, 다겹보온 커튼 등을 지원해 2020년 6.4ha(조기재배 주요산지 전국 3위)까지 확대했다. 올해도 블루베리 조기재배 관련 예산 5천만원을 책정해 총 6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재배 확대로 인한 블루베리 연중출하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루베리 재배농가 대다수가 개인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은 이같은 상황이 지역 블루베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출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021년 블루베리 공동선별장 추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와 농협APC 간의 공동선별장 운영방안과 대형 납품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블루베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있어 공동출하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공동출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형 납품처 확보 및 곡성 블루베리 브랜드화를 실현할 수 있다. 오늘 협의회는 곡성군 블루베리 공동선별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나주시, 추석 연휴 산림 임도시설 이용 자제 당부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산림 내 설치된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추석연휴 국민이동 최소화’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시는 매년 명절 때마다 벌초,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 임도를 임시 개방해왔으나 코로나 재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달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임도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고려했다.

임도시설은 임업경영과 산림 보호·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산림기반시설로 평상시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산림 내 희귀식물의 불법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산불 예방 등을 위해서다.

나주시는 다도면 신동지구 등 총 80개 구간, 111.6km의 임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번 산림 임도시설 통제 조치에 시민과 귀성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명절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농업인대학 비대면 교육 전환

농업인 교육생 60명 대상 교육 동영상 자체 제작

구례군은 지난 5월부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농업인대학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심각한 수해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월부터 교육을 잠정 연기했다.

이에 군은 외부강사와 군내 농업인의 접촉을 줄이고 영농기술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농업인대학 교육을 15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제12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교육생(60명)을 대상으로 석종욱강사(흙살림연구소 대표)가 ‘발효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주제로 한 총 8개 동영상을 15일부터 18일까지 네이버밴드에 게시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 담당자는 교육내용의 질과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SNS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수강방법과 문의점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의 수료율과 온라인교육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농업인 교육 분야에 추가 시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점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영농기술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대대포(대상)

천년담주(최우수상)

화순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군정발전 신규 시책’ 발굴

111개 시책 발굴…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중점

화순군이 17일 ‘2021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정 운영 방향과 신규시책 발굴에 나섰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두고 열린 보고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방향과 민선 7기 공약 사업, 지역 밀착형 생활SOC복합화 사업,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미래 화순의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총 111개 사업을 발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발굴된 시책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푸드플랜 추진 기획·생산 체계 구축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 일자리창출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아카데미 운영·랜선으로 즐기는 진로페스티벌·구직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등이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 스마트 홍보관 운영·SNS 서포터즈 운영, 소외 없는 복지와 생활방역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ONE-STOP 이동복지상담실·마음건강 카카오톡 채널 운영·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자활센터 소독방역 사업단 운영 등이 발굴됐다.

이외에도 군민 불편 해소와 생활밀착형 SOC 구축을 위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트리빌리지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대형 생활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구축·홀짝 주차제 시행 등 체감도 높은 생활 시책도 다수 발굴됐다.

군은 발굴된 시책을 민선 7기 군정 운영 방향과 소요 예산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국비 확보 활동과 2021년 본예산 반영 등 시책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발굴한 신규시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우리술 품평회’ 최고술

㈜죽향도가 막걸리‘대상’· 천년담주 약주 ‘최우수상’수상

담양군 전통주가 농림축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0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서 탁주부문에서 대상을 약·청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로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으며 탁주(박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리큐르)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올해는 5개 부문 246개 제품을 심사해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을 선정 했으며 담양군의 죽향도가에서 2개 부문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탁주(막걸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죽향도가의 대대포 막걸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토종 벌꿀을 사용하였다.

또한 저온발효공법으로 제조하여 깔끔하며 감칠맛이 뛰어난 프리미엄 탁주로 호평을 받았고 죽향도가에서 우리지역의 원료를 사용해 빚은 약·청주 부문의 천년담주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개 부문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수는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을 각종 행사의 만찬주로 추천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